

8/23/26

설교 제목: 누룩을 주의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6 장 1-12 절

###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막 8:11-13; 눅 12:54-56)**

-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막 8:14-21)**

- 5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 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 7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 8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 9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 10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 11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 12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마가단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곳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지상에서 연출되는  
이적 말고,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이적을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졌던 이적,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기도로 해와 달을 멈추게 했던 이적,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 주위에 있던 물을 모두 태웠던 이적....., 이런 종류의 이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적을 행하면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한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 당신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심을 증거하였음에도 이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 표적을 구한데 있습니다.

저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위한 검증이라기 보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올라가기를 씩씩 그를 넘어뜨리려는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나 기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하고도 온전한 믿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상 및 이념, 주의, 주장이 전혀 다른 집단으로, 서로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서로 연합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3 대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었고 모세 율법과 구전 전통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고 현실주의적이고 친로마 성향을 가졌습니다.

에세네파는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거부하고, 광야에서 엄격한 공동체 생활과 금욕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사악한 저의를 파악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고 하시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할 정도로 세상의 지식을 가졌으나,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이유는 이 표적이 스스로 죄의 길에 서서 마음의 눈을 닫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습적인 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줄 결정적인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단절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단절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단 반대편 가이시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기 위해 벳새다가 있는 갈릴리 호수 북동편으로 가십니다.

뒤늦게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수중에는 오래된 떡 한 덩어리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황급히 마가단을 떠나느라 제자들이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자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5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효소입니다.

누룩이 음식 속에 들어가면 음식이 발효됩니다.

성경은 누룩의 이 점에 착안하여 누룩을 위선이나 악과 같은 죄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죄가 사람 안에 들어 가면 죄가 퍼져 사람을 변질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누룩을 일반 백성들을 오도하는 교권 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떡을 가져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다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잘못된 교훈이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율법 형식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잘못된 교훈이란 부활과 영생을 부인하고 세상에만 관심을 두는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ㅈ[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실수로 빚어진 현상적인 문제 곧 떡을 가져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7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의 영적 교훈을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미 수많은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고, 인위적인 표적만을 구한 것 때문에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가 베푸신 이적을 믿지 않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불신앙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물질주의 사고를 질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다시 언급하심으로 두 이적들이 주는 영적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8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9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칠병이어로 사천 명을 먹이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11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떡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다르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현실적인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왜 이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악하고 음란한지라 진리를 통찰할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지껏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은 모두 잊어버린 채, 당장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은 채,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세속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룩은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누룩 하나가 반죽 전체에 퍼져 결국 그 성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신앙 하나, 작은 탐욕 하나, 작은 교만 하나, 작은 세속적인 생각 하나를 방치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확실한 표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떡이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표적을 더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떡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누룩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제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